

몰디브의 대인도 및 대중국 관계 변화 주요내용

- 최근 정권 교체 이후 몰디브의 주요 외교·대외협력국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환
 - 2023년 11월 집권한 신임 모하메드 무이주(Mohamed Muizzu) 대통령은 친중국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24년 1월 모하메드 무이주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했으며,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됨.¹⁾
 - 3월 4일 몰디브는 중국과 방위협정²⁾을 체결했으며, 몰디브 국방부는 이 협정을 통해 양국 간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
 - 반면 정권 교체 이후 인도와의 외교·경제 관계는 빠르게 소원해지고 있음.
 - 2024년 1월 모디 총리가 인도 남해 락샤드위프(Lakshadweep) 군도를 방문한 것이 외교 마찰로 불어지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³⁾
 - 몰디브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인도는 몰디브 해양 순찰 등의 역할을 해온 인도군 89명 및 지원 인력을 5월 10일까지 철수하는 데 합의함.
 - 최근 몰디브 내 인도 관광객 규모가 급감함에 따라, 최대 방문국 자리를 중국이 차지함.⁴⁾
- 최근 몰디브의 대인도 및 대중국 관계의 변화는 정권 교체 이후 외교 기조의 전환에 따른 것이며, 특히 인도와의 외교 마찰은 양국 관계 악화를 가속화
 - 주요 선거 공약으로 '인디아 아웃(India Out)' 캠페인을 펼친 무이주 대통령은 집권 이후 본격적으로 인도와의 외교적 거리를 두고 있음.
 - 반면 무이주 정부는 중국과 경제 교류 외에도 국방·안보 협력까지 양국 관계를 발전 시키기 위해 노력중

1) 또한 몰디브와 중국은 인프라·에너지·해양·농업 분야 등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함.

2) 양국 간 방위협정에 따라 중국은 다양한 국방 및 군사적 지원을 할 예정이며, 향후 몰디브군의 군사 훈련도 제공할 것으로 보임.(Al Jazeera)

3) 모디 총리의 락샤드위프를 방문이 몰디브 관광 축소 목적이라고 판단한 수명의 몰디브 고위 관료가 모디를 "테러리스트" 등으로 비난했으며, 이에 따라 외교 마찰이 발생되고 인도 내에서 몰디브 보이콧 운동이 일기도 함.(Guardian)

4) 2021~2023년 사이 인도는 몰디브의 최대 방문국 자리를 유지했으나, 최근 수개월 내 양국 관계 변화 기조에 따라 관광객 규모도 급감하고 있음.(2024년 3월 인도발 관광객 규모는 27,224명으로 41,000명을 기록한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Hindustan Times)

표. 몰디브 대외부채 주요 채권자('23 4분기)

(단위: 백만 몰디브 루피아(MVR millions) ,%)

순위	채권자	금액	비중
1	중국수출입은행(CEXIM)	8,156.2	21.8%
2	대외 채권소유자	7,700.0	20.6%
3	인도수출입은행	6,281.3	16.8%
4	OPEC 국제발전기금	1,785.6	4.8%
5	아부다비개발기금(ADFD)	1,675.9	4.5%
6	사우디산업개발기금(SIDF)	1,570.5	4.2%
7	CFSIT Inc.	1,540.0	4.1%
8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IDA)	1,503.0	4.0%
9	기타	7,157.6	19.2%
	전체	37,370.1	100.0%

주: 몰디브 중앙정부의 미상환 대외부채 기준임.
자료: 몰디브 재무부.

그림. 인도 해군기지(INS Jatayu) 신설 지역



주: 점선 영역은 락샤드위프(Lakshadweep) 군도 지역.
자료: BBC.

- 인도양(IOR) 내 해양 안보 등 최근 인도와 중국의 역내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중임.
 - 인도는 모리셔스, 세이셸 등의 도서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적극 확대하고자 함.
 - 2024년 3월 인도 해군은 몰디브와 가까우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락샤드위프(Lakshadweep) 군도⁵⁾ 미니코이(Minicoy)섬에 새로운 해군 기지인 INS Jatayu를 신설⁶⁾
 - 인도는 모리셔스의 아갈레가 제도에 부두 및 활주로 신설, 해안 감시 레이더망 구축 등 인프라 및 안보협력을 심화중이며, 향후 모리셔스 연안 내 해군 활동도 확대할 전망
 - 중국도 스리랑카, 몰디브, 미얀마 등의 국가들에 대한 경제 및 안보협력을 강화중
 - 2024년 2월 중국 조사선 Xiang Yang Hong 3호가 몰디브 수도 말레에 정박
 - 함반토타항 운영권 등 스리랑카에서 경제·안보적 영향력을 확대중인 중국은 최근 2년간 조사선이 2회 이상 스리랑카에 정박
- 정권 교체 시마다 외교정책의 변동성이 높은 몰디브⁷⁾는 현 정권 기간 대중국 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대내외 정치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무이주 정권 기간 몰디브-중국 간 협력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보이나, 인도의 대몰디브 영향 및 상호 관계도 지속될 것임.
 -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SIIS)의 Liu Zongyi는 향후 몰디브가 중국과 인도 간 경쟁구도 하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2024년 4월 예정된 총선 결과 등 몰디브의 정치환경 변화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큼.

백중훈

5) 락샤드위프(Lakshadweep) 군도에는 36개의 섬이 있고 10개에만 사람이 거주중이며 총 인구는 약 7만 여명임.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비해 관광인프라가 크게 부족하나, 최근 타타그룹 등이 군도 내 관광 인프라를 개발할 계획을 발표(BBC)

6) 락샤드위프(Lakshadweep) 섬 해군 기지는 몰디브로부터 불과 120km 거리에 위치

7) 2013~18년 집권한 제6대 압둘라 야민(Abdulla Yameen) 정부 시기에는 대중국 관계가 크게 진전되었고,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Ibrahim Mohamed Solih) 전 대통령(제7대)은 2018~23년 집권 기간 친인도 행보를 보임.